

# 말씀의 샘

## 진정한 성공과 행복 <창세기 4:16~26>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아벨을 살해한 후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이라는 이름의 땅에 거주합니다. 놋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방랑”, “방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에덴동쪽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처럼 “여호와와 앞을 떠나서”간 놋 땅은 그 뜻 그대로 방황하는 곳입니다. 가인은 거기서 성을 짓습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요새와 같이 견고한 집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의 작품이요, 멋지고 웅장한 집인지는 모르겠으나 놋 땅에 있는 방황하는 사람의 작품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만든 모든 작품은 놋 땅에 있었으며 방황 중에 만든 쓸모없는 작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가인은 견고한 성을 만들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살인하고 여호와에게서 쫓겨난 인간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인간의 마음의 바탕은 고독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인 에녹<전수자, 가르치는 자, 시작하는 자의 뜻>을 따서 붙였습니다. 종교롭게도 노아의 증조부 에녹과 동명이인입니다. 노아의 증조부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이름은 똑같이 “시작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가 시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은 이렇게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또 가인의 오대 손 라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두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살인을 하였으며 자기 상처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고 노래를 지어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여호와와 앞을 떠나서 방랑의 땅에 거하다보니 자손들은 갈수록 문란해지고 포악해지며 더욱 망가진 삶을 살아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쉴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로다 하였더라**

신앙이 없으니 인격적인 통제가 되지 않고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의 살기가 갈수록 증폭되고 유전되어 라멕은 더욱 포악한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살인 후, 그의 삶에는 두렵고 어두운 노래가 온통 뒤덮었고 그의 정서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정죄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 방랑의 땅에 거하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를 버리고 세상 것에서 찾으려한다면 그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좀 답답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위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며 주인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한편, 라멕이 두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들은 전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지만 꼭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떠난 살인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들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창세기 4:20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 쉴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음악분야, 목축업분야, 기계와 철강분야의 전문가들이 라멕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나왔지만 역시 하나님 없는 성공이며,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하나님 앞을 떠나서 방랑의 땅에서 시작된 그들의 삶은 결과도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족보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때 홍수가 터지면서 그들이 했던 모든 작품, 모든 삶은 물에 전부 잠기고 말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렇다 할 것이 없다하더라도 진정한 성공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창세기 4: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위기 속에서도 다시 도전할 믿음이 생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와의 이름을 불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득남하였다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회복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또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또 한번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벨은 죽고 가인은 쫓겨난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했겠지만 아담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은 좌절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아담이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아담은 아벨의 예배를 셋에게 가르쳤고, 그 예배는 발전해서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 때는 집단 예배가 있었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받고 함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신성한 예배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지만 끝을 봐야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 계열의 사람들은 야발, 유발, 두발가인 같은 전문가도 없었고 또 알려진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컫는 예배자들이 타락해서 가인 계열의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쾌락을 좇으며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의 자녀들은 고대의 용사가 되었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 용사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명성을 얻은 유명한 용사들은 흉수로 멸망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다음 세대를 이어간 성공자,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믿노라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형식적인 크리스천이어서는 안 됩니다. 심령이 이미 하나님 앞을 떠나서 놋 땅에서 성을 쌓고 자기 전문분야에서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မ်뿐인 신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공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성공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하여, 하나님안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섬기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2017년 1월 22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7. 1. 22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대표기도 ----- 이 기훈 집사 (다음주 : 이 기훈 셀장)

헌금

성경봉독 ----- 누가복음 4:5~8

말씀선포 ----- 이 강화 목사

우리의 참 주인

축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배안내

주일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예배 : 금요일 오후 8:00

